코로나 '보복소비'에 광주 백화점들 명품 보강

1~7월 매출 광주신세계 15%·롯데백화점 광주점 10% 이상 증가
광주신세계, 명품 브랜드 남성전용 매장 연말까지 신규 도입
롯데백화점 광주점, MZ세대 겨냥 겐조·알렉산더 맥퀸 입점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한 '보복 소비'가 여전히 기세를 떨치면서 광주 주요 백화점들은 하반기에도 해외명품을 보강하기로 했다.

4일 광주 백화점 업계에 따르면 ㈜광주신세계와 롯데백화점 광주점의 올해 1~7월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각각 15%, 10% 이상 증가했다.

매출 직격탄을 맞았던 지난해에 대한 기저효과 영향도 있지만 해외명품 매출은 코로나19 사태와 상관없이 고공행진을 이어갔다.

같은 기간 광주신세계 명품 매출은 전년보다 28% 증가했고, 롯데백화점 광주점도 30% 이상 늘었다.

광주신세계의 경우 골프 상품 매출이 40% 늘며 해외명품과 함께 전체 점포 매출을 끌어올렸다. 남성(11%), 스포츠(10%), 아웃도어(9%) 부문도 매출이 전년보다 늘었다.

롯데백화점은 해외명품에 이어 가전·가구 매출이 지난해보다 20% 이상 증가했다. 패션·잡화(-15%)와 스포츠·아웃도어(-8%)는 전년보다 부진한 성적을 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관계자는 "코로나19 보복 소비 심리로 인해 명품은 여전히 강세를 보였고 집에서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가전·가구 매출도 늘었다"며 "반면 외부 활동이 어려움에 따라 스포츠·아웃도어·패션잡화 상품군의 매출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경기 침체 속에서도 해외명품은 '두 자릿수' 매출 증가율을 기록하면서 지역 주요 백화점들은 연말까지 신규 명품 브랜드를 더 들인다.

광주신세계에는 프랑스 명품 브랜드 '루이비통' 남성 전용 매장이 이달 중으로 점포 2층에 문을 열고, 이탈리아 브랜드 '구찌' 남성 전용 매장도 연말까지 1층에 신규 입점할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지난해 상반기 21개였던 해외명품 브랜드를 연말까지 26개로 늘릴 방침이다. 광주점은 지난 연말부터 대대적인 개선 공사를 진행하며 1층과 2층 고급화를 추진해왔다.

지난해 10월 스페인 패션 브랜드 '발렌시아가'가 신규 입점했으며, 지난달 22일에는 이탈리아 밀라노 패션 브랜드 '돌체 앤 가바나'가 들어섰다.

앞서 올해 2월에는 점포 2층에 프랑스 패션 브랜드 '겐조' 매장을 신규 입점시켰다. 20~30대로부터 인기가 많은 '겐조'는 의류, 가방, 신발 등 다양한 상품을 선보이고 있다.

오는 6일에는 이탈리아 브랜드 '오프화이트'가 1층에 문을 열며, 다음달에는 영국 패션 디자이너의 브랜드 '알렉산더 맥퀸'이 광주 고객을 만난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해외명품 매장은 지난해 상반기 21개를 시작으로 22개(지난해 하반기)→23개(올해 상반기)→26개(올해 하반기) 등으로 꾸준히 늘려왔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전남지역 모든 하나로마트 여름철 식품위생 특별점검

농협 전남지역본부는 전남지역 모든 하나로마트, 로컬푸드 직매장 등 경제사업장을 대상으로 하절기 식품안전 특별점검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는 원산지 관리·표시사항 준수, 로컬푸드직매장 내 타지역 농산물 혼입 여부, 잔류농약 검사, 여름철 식품위생 준수사항 등 주요 점검항목을 살핀다.

농산물판매장 운영 관련 제규정 준수 여부도 점검한다.

미준수 판매장에 대해서는 현장지도와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할 예정이다.

박서홍 전남본부장은 "코로나19로 어느 때보다 소비자들의 식품안전·위생관리에 대한 관심과 기대치가 높다"면서 "농산물 취급기준 미준수로 발생할 수 있는 식품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추석선물 미리 사면 할인" 대형 유통매장, 예약 판매 돌입

할인·상품권 증정 등 혜택 다양

광주지역 대형 유통매장들이 본격적인 추석선물 수요 잡기에 나선다.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오는 6일부터 26일까지 21일 동안 지하 1층 식품매장에서 추석선물 사전예약 판매를 한다고 4일 밝혔다.

롯데 측은 코로나19 4차 유행이 진행되면서 '비대면 명절 선물' 물량을 전년보다 20% 늘렸다.

올해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명절 집밥 수요를 겨냥해 '한우 토마호크 티본 스테이크세트'를 처음 선보인다.

행사 기간 동안 스테이크 세트를 포함한 한우세트를 15% 할인된 가격에 내놓는다. '홈술족' '집콕족'을 위한 와인은 품목별로 최대 60% 저렴하게 판매한다. 건강기능식품 세트는 최대 70% 할인율을 내걸었으며, 굴비는 20% 할인 판매한다.

전남지역 대표 '로컬푸드'(직거래 농산물)도 다양하게 매대를 채운다.

한복양 롯데백화점 광주점 식품팀장은 "비대면 선물 구매·결제를 선소하는 고객을 위해 마련된 '홈결제 서비스'를 이용하면 더 안전한 쇼핑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광주지역 롯데마트 4개점(월드컵점·첨단점·상무점·수완점)은 앞서 지난달 29일부터 추석선물 사전예약 판매에 들어갔다.

사전예약은 오는 9월8일까지 42일 간 진행된다.

지난해보다 물량을 20% 늘려 한우와 과일, 신선식품, 가공식품, 건강식품 등 총 900여 가지를 만날 수 있다. 예약판매 기간 동안 행사카드로 결제하면 최대 150만원 상당 상품권을 증정하며, 최대 3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신세계백화점은 오는 13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추석 선물세트를 예약 판매하며, 이마트는 5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예약 판매를 벌인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4일 롯데백화점 광주점 직원들이 추석선물 사전예약 기간(6~26일) 동안 판매할 상품들을 선보이고 있다. 〈롯데쇼핑 제공〉

"양산으로 체감온도 10도 낮춰요"

㈜광주신세계 직원들이 잡화 매장에서 뙤약볕을 막아줄 양산을 선보이고 있다. 〈광주신세계 제공〉

광주신세계 매출 400% 증가

연일 지속되는 폭염에 자외선을 막아줄 양산 수요가 늘고 있다.

4일 ㈜광주신세계에 따르면 이 매장의 지난 7월 한 달 간 양산 매출은 1년 전보다 2.7배 증가했다. 폭염이 극성을 부렸던 최근 일주일 동안(7월26일~8월1일)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400% 증가했다.

광주신세계 관계자는 "폭염 때 양산을 쓰면 체감온도를 10도 정도 낮출 수 있고 자외선 차단 효과도 누릴 수 있다"며 "양산을 고를 때 바깥 면은 밝고 안쪽은 검정과 같은 어두운 색을 고르는 게 좋다"고 설명했다.

계속되는 무더위에 대비하기 위해 점포 2층 화장품 브랜드 '시세이도' 매장은 오는 15일까지 지친 피부를 진정시키기 위한 아이크림·마스크팩 세트를 30% 할인 판매하고, 자외선 차단제를 2개 사면 1개 더 주는 '2+1' 세트 기획 판매를 벌인다.

2층 'SK-Ⅱ' 매장도 같은 기간 동안 신규 가입 고객과 피부 상담 고객을 대상으로 로션·에센스 등 화장품 견본을 증정한다.

/백희준 기자 bhj@

부동산중개법인 한국토지부동산 투자가치 100% 확신! 강력추천!

서구 쌍촌동
(한국병원 부근)

■ 대 지 : 2,700 ㎡
■ 건 물 : 3,704 ㎡
■ 지상4층 근린생활시설
■ 지하2층 주차장 기계실

매도가격 협의

상담 010-3733-3933